

泠齋 柳得恭의 초기 詩 考察

-『韓客巾衍集』을 중심으로-

박종훈*

<차례>

1. 들어가는 말
2. 담박한 삶에의 지향과 역사의식의 발현
3. 唐風의 추구하고 기발한 발상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18세기 조선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사상이 공존하며 변화의 바람이 거센 시기였다. 그러한 변화의 물결은 사상뿐 아니라 문학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한시에 있어서도 새로운 경향이 대두되었는데, 격식과 규범에서 탈피, 개성의 추구하고 변화의 시도, 진실한 표현과 사실적 묘사 등이 그것이다.¹⁾

* 서울디지털대학교

1) 안대희, 『18세기 한국 한시사 연구』(소명출판, 1999.) 참조. 시풍 변화의 주요인으로는 사회의 안정과 경화사족의 대두, 시인 층의 다변화와 소외, 인간과 사물에 대한 인

이러한 새로운 시풍의 중심에는 『韓客巾衍集』으로 조선 뿐 아니라, 청대 문단에도 이름이 알려진 ‘四家’가 있다.²⁾

英祖 이래 風氣가 한 차례 바뀌었으니, 李用休, 李家煥 父子와 李德懋, 柳得恭, 朴齊家, 李書九의 무리들이 奇詭를 주로 하거나 혹은 尖新을 주로 했다. 그 한 세대의 오르내림의 자취를 옛날과 비교해 보면 盛唐·晚唐과도 같다.³⁾

‘사가’가 추구한 奇詭하고 尖新한 개성적 시풍은 마치 盛唐과 晚唐 때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다. 이러한 평가는 그들의 시풍이 그 시대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시풍을 주도했던 ‘사가’는 柳琴에 의해 중국에까지 그 詩名을 떨쳤다. 유금은 영조 52년(1776)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부사 徐浩修를 수행하고 연경에 다녀 왔다. 이 때 ‘사가’의 시선집인 『韓客巾衍集』을 가져가 청조 문인 李調元和 潘庭筠에게 서문과 평어를 받은 바 있다. 이조원은 靑으로, 반정균은 朱로 批點과 圈點을 찍었으며, 각권 끝에는 이조원의 總評과 반정균의 跋尾가 붙어 있다. 판본에 따라 수록한 작품의 수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네 사람의 작품을 각각 100수씩 선집 했다. 泠齋 柳得恭(1749~1807)의 경우, 그의 초기 시집인 『歌商樓集』에서 오언절구 1수, 육언 8수, 칠언절구 35수, 오언율시 19수, 칠언율시 19수, 오언고시 13수, 칠언고

식의 전환, 명말청초 문학의 수용을 들었다.

2) 李調元和 潘庭筠은 『韓客巾衍集』서문에서 각각 薑山 李書九, 泠齋 柳得恭, 楚亭 朴齊家, 炯庵 李德懋 이 네 사람을 엮어 ‘四家’, ‘海東四家라 명명했는데, 이로부터 ‘四家’라는 명칭이 보편화되었다. 이들 네 시인을 ‘後四家’, ‘北學派’, ‘白塔詩派’ 등으로 명명하는데, 본고에서는 ‘四家’라 약칭하고자 한다.

3) 金澤榮, 『申紫霞詩集序』(『韶濩堂文集』) “自英廟以下, 則風氣一變, 如李惠實錦帶父子, 李炯菴柳泠齋朴楚亭李薑山之倫, 或主奇詭, 或主尖新. 其一代乘降之跡, 方之古則猶盛晚唐焉.”

시 1수, 東禽言 4수를 골라 도합 100수를 뽑아 실었다.

영재에 대한 선행 연구는 「二十一都懷古詩」를 비롯한 詠史詩나 懷古詩에 집중되어 있다. 4) 「松京雜絶」과 王士禎의 「秦淮雜絶」의 유사성을 통해 청대 시의 수용 양상에 대한 접근도 있었고 5) 영재 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음악성 및 회화성과 관한 논의도 있다. 6) 또한 『한객건연집』 소재 작품을 중심으로 助字의 사용, 색채어의 구사, 첩어의 활용 등 표현 면에서의 고찰도 이루어졌다. 7) 이 같은 논의는 영재 초년 시의 특징 중 일면을 부각시킨 것이지만, 단편적인 언급에 머물러 전체상을 심도 있고 구체적이며 입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객건연집』 소재 영재 작품의 평어를 중심으로, 초기 시의 특징을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의 시세계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18세기를 풍미했던 새로운 시풍의 일면을 살피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2. 담박한 삶에의 지향과 역사의식의 발현

2.1 담박한 삶 속의 비장함

동소문 동편에서 다시 동쪽 향하니
신흠사 옛 절은 그 터에 그대로네.

東小門東更向東
新興齋寺舊樓同

4) 송준호, 「柳得恭論」, 『朝鮮後期 漢文學 作家論』, 집문당, 1994.

5) 김병민, 『朝鮮中世紀 北學派 文學研究』, 목원대 출판부, 1992.

이경수, 『漢詩 四家の 清代 詩 受容 研究』, 태학사, 1995

李胤淑, 「漢詩 四家の 初期詩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6) 정량완, 『朝鮮朝後期 漢詩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1983.

문복희, 「유득공의 실학정신과 시」, 『경원어문논집』 4.5합집, 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1.

7) 김윤조, 「유득공 시의 문예미」, 『한국한시연구』 12집, 한국한시학회, 2004.

헤어진 지 며칠 만에 그대 吳下 아니고
화답하는 이 없으니 이 또한 郢中일세.
추운 겨울 서럽게 우는 새와도 같고
기생하는 게와도 같아서 애달프다.
찬 산의 피리 소리 이 밤에 서러운데
집 주위 내린 서리에 잎새 붉게 물든다.

別來幾日非吳下
和者無人又郢中
還似寒號得過鳥
偏憐瑣蛤寄居蟲
寒山蠹管悲今夜
繞屋霜鳴櫺櫺紅⁸⁾

芙蓉山에서 벗과 옛 얘기 하며 자신의 처지와 심사를 읊은 작품이다. 3,4구에서는 지명과 관련된 고사를 활용하여 벗의 학식을 칭송했다. 3구의 '吳下'는 吳나라 呂蒙의 고사로, 9) 다시 만난 벗의 학식이 팔목상대해졌다는 의미다. 4구에서는 고상한 노래를 할수록 화답하는 이가 적었다는 고사를 활용하여 10) 벗의 곡조가 고상한 기풍을 띠고 있다고 칭송했다. 이어 5,6구에서는 벗과 상반되는 자신의 처지를 外物에 견주었다. 5구의 '寒號'는 冬至에 털이 빠져 앙상해진 채로 추위를 견디며 겨울을 나는 새고 11) 6구의 '瑣蛤'은 게 [蟹]와 비슷한데, 조개의 배속에 기생하는 생물이다. 이를 겸사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처지나 역량에 대한 自嘲가 짙게 깔려

8) 「芙蓉山中話舊述懷」(1). 『冷齋集』에는 「夜坐與芝圃子話舊」로 되어 있다.

9) 吳나라 呂蒙이 처음에 무식했으므로, 孫權이 그에게 “국사를 하려면 학문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는데, 그 후로 그는 열심히 공부 해 학식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뒤에 魯肅이 그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지금은 학식이 해박하여 그 옛날 오하의 여몽이 아니구나.”라고 하자, 여몽이 “선비란 서로 헤어진 지 사흘만 되어도 학식이 몰라보게 달라진다고 했다. 『三國志』 「呂蒙傳」에 보인다.

10) 郢中에서 노래하는 길손이 맨 처음 下里曲·巴人曲을 노래했을 때는 國中에서 화답하는 자가 수천인이요, 陽阿曲·薤露曲을 노래했을 때는 수백 인이요, 陽春曲·白雪曲을 노래했을 때는 수십 인에 불과했으니, 이것은 곧 곡조가 고상할수록 화답하는 자가 더욱 적기 때문이다. 『文選』 「宋玉對楚王問」에 보인다.

11) 寒號는 五靈山에 사는데 형상은 작은 닭과 같으나 네 발에 肉翅가 있다. 여름에는 깃털이 五色이며 그 울음소리가 마치 '봉황은 나만 못해. 鳳凰不如我'라고 하는 듯하나 冬至에는 털이 빠지고 앙상하여 겨울의 추위를 참고 견디면서 괴로워하며 '그러저 력 되어 가는 대로 산다. 得過且過'고 우는 듯 하다. 陶宗儀의 「輟耕錄」 「寒號蟲」에 보인다.

있다.¹²⁾

나그네로서의 시름이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어린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한 젊은 날의 울분을 대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 매몰되지 않고 담담하게 세상을 받아들이고 고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발득길 따라서 길손 와서는	客從田間至
공손히 말하길 “보잘 것 없소	跪言不足珍
떡은 농가에서 만든 것이고	餅是農家爲
병아리라 대접 못해 미안하군요.	雞小恨未陳
그대의 글 읽는 소리 듣고서	聞子讀書聲
이것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持以慰茲辰
부끄럽구나, 덕도 쌓지 못했는데	自慙非宿德
후한 음식 야인에게 보내오나니.	厚饋來野人
성인의 글 거칠게 읽은 것인데	粗讀聖人書
마을의 새벽 닭 잡을 뻔 했네.	荒村缺司晨
농사일은 예로부터 권장했지만	力田古所獎
배움은 진실로 고달프구나.	游學良苦辛 ¹³⁾

東峯精舍에서 宋芝圃와 함께 글을 읽는데 농부가 찾아온 상황이다. 글 읽는 소리를 듣고 떡을 마련해 찾아왔다는 농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시상을 열어갔는데, 이는 陶潛의 「飲酒」와 전개과정 및 내용이 유사하다.¹⁴⁾ 이 조원도 이를 감안하여 “고담하기가 도잠과 같다. 古淡如淵明”고 평한 바 있

12) 이조원의 이 작품에 대해 ‘筆頭變幻如雲如龍’이라 평했는데, 이는 자신과 벗의 상황을 묘사하며 풀어나간 것에 대한 평이다. 반정균은 ‘屬對生動’이라 하여, 3,4,5,6구의 대구에 주목했다.

13) 「東峯精舍與芝圃宋子仲讀」(2)

14) 陶潛, 「飲酒」(9) “清晨聞叩門, 倒裳往自開. 問子爲誰與, 田父有好懷. 壺漿遠見候, 疑我與時乖. 繼續茅簷下, 未足爲高栖. 一世皆尙同, 願君汨其泥. 深感父老言, 稟氣寡所諧. 紆轡誠可學, 違已詎非迷. 且共歡此飲, 吾駕不可回.”

다. 이는 솔직하고 순박한 마음을 담담하게 털어 놓았으며, 담박하고 우아한 느낌을 전달하여 言外味를 추구했다고 평가되는 도잠의 시풍과 일맥상 통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 평이다.¹⁵⁾ 이 외에도 대화형식으로 전개해 나간 흐름이나 화려한 문사로 꾸미지 않고 평이하고 질박한 언어를 통해 전달했지만, 의미망이 풍부하다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동일한 제명의 첫 번째 작품에서도 「醉翁亭記」·「六一居士傳」 등을 통해 산수 간에서 유유자적 살아가는 삶을 지향했던 歐陽脩의 글과 전원생활의 정경과 풍치를 잘 묘사해 후대에 널리 암송되었던 范成大的 「四時田園雜興」을 애호했다고 했는데,¹⁶⁾ 이 역시 산수자연 속에 은일하거나 또는 외물의 구속에서 벗어나 담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동경 어린 시선이다. 도잠의 시풍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개성 있는 시풍을 추구했던 韋應物과 관련된 언급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된서리 내리는 시월 즈음엔	繁霜十月交
농부들 생각할 겨를도 없네.	農夫念廢及
첫새벽에 일어나 새벽밥 먹고	清晨起蓐食
밤새도록 방아 찧는 소리 듣누나.	終夜聞舂粒
장작은 마련해서 서울에 팔고	伐薪賣京國
산골 부엌에선 누런 잎을 땀다네.	山廚足黃葉
밤길 가는 것도 싫다지 않고	宵征不敢憚
새벽 별 해진 샷갓 비취준다네.	殘星照半笠
벼슬아치가 되지 못하였기에	不得爲君子
진실로 이런 고생 감수하누나.	辛苦良所習

15) 陶潛의 고담한 시풍에 대해서는 尹錫愚의 『陶淵明의 思想과 飲酒詩歌 考察』(『중국어문학논집』 26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4.)과 최웅혁의 『清詩話』와 『清詩話續編』의 陶淵明 詩에 관한 評語 研究(『중국학연구』 24집, 중국학연구회, 2003.) 참조.

16) 「東峯精舍與芝圃宋子仲讀」(1) “謝彼京洛紛, 得棲寒山隅. 文讀歐陽子, 詩愛范石湖. 亮非館閣才, 仰暫君子儒. 欣與才彥共, 所說皆程朱. 超悟冷然笑, 舉言開蒙夫. 壯年端可惜, 哀樂響庭株.”

낮 들고 들판에 나가노라면	操鎌在中野
북풍이 칼날처럼 불어 닥치네.	朔風來蕭颯
백로처럼 한 사람 멀리 섰는데	人遠一鷺峙
밭두둑 환해 거울 포개 놓은 듯.	畦明萬鑑疊
사립에는 아무도 찾는 이 없고	柴扉斷人蹤
울타리엔 잠자리만 앉아 있구나.	籬末蜻蜓立 ¹⁷⁾

겨울을 맞이하는 농가의 모습이다. 일견 전원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고통 받는 농민들의 현실을 그대로 묘사했다. 끝도 없는 노동에 시달리는 농부의 모습과 호구지책으로 장작을 내다 팔면서 정작 자신은 나뭇잎을 모아 불을 지피는 고단한 일상이 담겨 있다. 관념 속의 전원이 아닌, 현실 속의 전원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재만의 독특한 전원시다.

이조원은 “위응물의 충담한 경지와 유사하지만 신영함은 더 낫다. 沖淡似韋蘇州而新穎過之”고 평했다. ‘충담’이란 마음이 고요하고 욕심이 없는 상태다. 작품의 표면상으로 보면 전원의 생활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이 질기에 일견 타당한 평가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응물은 ‘平淡自然’ 혹은 ‘古雅閑淡’ 등으로 평가되며¹⁸⁾ 전원생활의 정취를 노래하면서 고통 받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동정심을 그려낸 독특한 일면이 있다.¹⁹⁾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조원은 위 작품을 위응물에 견주면서도 새롭다고 평했다. 이는 위응물의 「觀田家」란 작품을 의식한 언급이다.²⁰⁾ 「觀田家」는 농사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굶주림과 고된 노동도 마다 않으며 내리는 단비에 반가워하는

소박한 심정을 드러냈고 관리로서 부끄러운 일면을 고백하고 있어 담박한 정취가 잘 표현된 작품이다.²¹⁾ 반면, 영재의 작품은 노동에 시달리는 백성의 삶을 위안하거나 자신의 일에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소박한 인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관념속의 전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현실 속의 전원을 노래하면서 질고에 시달리는 농민의 모습만을 과감히 제시했다.

동일한 제목의 첫 번째 작품에서는 전원의 풍경을 그림처럼 담담하게 그려냈지만, 尾聯에서 해가 저물도록 들판에 서 있는 농부의 모습을 제시하여 고단한 그들의 삶을 형상화했다.²²⁾ 이 역시 관념 속의 전원이 아닌 삶의 현장으로서의 전원이다. 사실주의 경향의 전원시는 현실을 깊이 의식한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현실주의적 경향은 이후 懷古詩나 詠史詩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稷下에서 일찍이 학문을 배웠는데	早學離龍稷下林
서리 맞은 연잎 주름 옛 선비 같구나.	霜荷皺似舊青衿
갓 쓰고 신 끌면서도 商頌을 노래하고	整冠納履猶商頌
삿갓 쓰고 수레 타도 越人 바람 읊조리세.	戴笠乘車更越吟
쓸쓸한 책상에서 『太玄經』을 지으리니	寂寂書牀玄尚白
떠도는 길손 굴뚝 이제야 그을리네.	棲棲客垆墨初黔
주인이 물가에 지은 집이 많은 것은	主人亭館多臨水
물고기도 나와서 거문고 소리 들으라고.	定使寒魚出聽琴 ²³⁾

宋芝圃와 변함없는 사침을 유지하며 고상하게 살아가자고 다짐한 작품이

17) 「田家」(2)

18) 위응물의 시풍에 대한 논의는 권호중의 『위응물시선』(문이재, 2002.) 참조.

19) 최웅혁, 「韋應物的 吏隱과 그의 田園詩」(『중국학연구』 38집, 중국학연구회, 2006.) 참조.

20) 韋應物, 「觀田家」“微雨衆卉新, 一雷驚蟄始. 田家幾日閑, 耕種從此起. 丁壯俱在野, 場圃亦就理. 歸來景常晏, 飲犢西澗水. 饑勗不自苦, 膏澤且爲喜. 倉廩無宿儲, 徭役猶未已. 方慚不耕者, 祿食出閭裏.”

21) 裊다니엘, 「韋應物的 現實詩 研究」(『중국학연구』 10집, 한국중어중문학회, 1995.) pp. 66~67 참조.

22) 「田家」(1) “寒山一以橫, 荒原與之接. 歷歷霜林別, 依依暮屋疊. 明澹孤烟在, 滅沒歸翼急. 側愴農家子, 移時遙野立.”

23) 「芙蓉山中話舊述懷」(5)

다. 그러한 의지를 고사를 통해 드러냈다. 3구의 ‘商頌’은 曾子가 갓끈이 끊어지고 신의 뒤꿈치가 터진 상황 속에서도 상송을 노래하자 그 소리가 천지에 가득했다는 고사인데,²⁴⁾ 빈한한 생활 속에서도 맑은 절조를 고수하지는 다짐이다. 이는 영재의 초년 시집인 『歌商樓集』과도 연관되니 젊은 날의 지향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구에서는 ‘그대가 수레를 타고 내가 삿갓을 쓴다 해도 뒷날 서로 만나거든 수레에서 내려와 음을 하자’는 내용의 越人의 바람을 인용하여²⁵⁾ 부귀로 인해 빈천할 때의 사귀를 잊지 말자고 다짐한 부분이다. 5구의 ‘玄尙白’은 揚雄의 고사다. 양웅이 『太玄經』을 집필하면서 담백한 생활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권세에 아부하여 출세한 자들이 “아직도 완전히 검어지지 않고 흰 부분이 있어서 출세하지 못한다. [玄尙白]”고 조롱한 일이 있다.²⁶⁾ 여기에서는 時流에 영합하지 않고 초연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필 작업에 열정을 쏟겠다는 뜻이다. 6구는 春秋시대 墨翟이 도를 행하려고 사방을 周遊하느라 골똥이 검어질 겨를이 없었다는 고사인데,²⁷⁾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다. 마지막 句 역시 거문고 소리가 하도 묘하여 물고기가 떠올라 들었다는 고사를 활용하여²⁸⁾ 뛰어난 재주를 지닌 자부심을 표출했다.

빈천한 삶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귀와 고상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일견 꾀꾀한 의지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고상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오는 비장함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를 의식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 또한 깃들여 있다. 이덕무는 영재의

초년 작품의 시구를 열거하면서 “모두 깨끗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았고 때로는 처절하고 비장한 음색을 띠고 있다. 皆妍潔不塵，時帶悽楚悲壯之音。”고 평가했는데,²⁹⁾ 이 역시 고담하고 고상하며, 호방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그 내면에 깃든 비장함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살피볼 詠史詩나 懷古詩의 경우에도 이조원이 “쓸쓸하고 애절하고 아름다워 천추의 절조다. 淒迷哀艷，千秋絕調.”라 평한 것처럼, 전체적인 분위기는 애절함과 비장함이 주조를 이룬다.

2.2 역사 의식의 발현

영재는 「渤海考」와 「二十一都懷古詩」를 지어 우리 민족과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드러냈다. 徐滢修는 「歌商樓詩集序」에서 “詩者，史之餘也.”라 하면서 영사시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이는 영재가 역사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화한 것에 대한 평이다.³⁰⁾ 「한객견연집」에도 17수 가량의 詠史詩나 懷古詩가 수록되어 있는데, 영재만의 독특한 시선이 맞닿아 있어 주목을 끈다.

비 개인 혈구나루 길손 배를 대노니
푸른 숲 사이로 이궁이 보이노라.
돛대는 祖江의 비에 반 남짓 젖었고
깃발은 손돌바람에 완전히 기울었네.
바다 가의 누대에서 어부는 피리 불고
구름 사이 성곽에는 술집 깃발 휘날리네.
마름 노래에 저물녘 포구로 돌아오니
저녁 해 물 위에 한 줄로 붉어라.

穴口新晴倚客篷
葱青玉樹望離宮
帆身半濕祖江雨
幡脚全斜孫石風
漁笛樓臺滄海上
酒旗城郭白雲中
菱歌極浦歸來晚
西日平沈一線紅³¹⁾

24) 『莊子』「讓王」 “曾子居衛，緼袍無表，顏色腫噲，手足胼胝，三日不舉火，十年不製衣。正冠而纓絕，捉衿而肘見，納履而踵決。曳縱而歌商頌，聲滿天地，若出金石。天子不得臣，諸侯不得友。故養志者忘形，養形者忘利，致道者忘心矣。”

25) 周處，『風土記』 “古時越人性率樸，與人結交有禮儀，封土壇，祭以雞犬，祝曰，卿雖乘車，我戴笠，後日相逢下車揖。我步行，君乘馬，後日相逢君當下。”

26) 『漢書』「揚雄傳」에 보인다.

27) 班固，「答賓戲」 “孔席不暖，墨突不黔。”

28) 『荀子』「勸學」 “瓠巴鼓瑟而游魚出聽”

29) 李德懋，『清脾錄』 권4，「洽齋 條」.

30) 徐滢修，「歌商樓詩集序」(『明皇全書』 권7)

통진에서 강화도로 가는 나루터인 穴口津에서 읊은 작품으로, 역사적 현장에 대한 지리와 전설에 관심을 쏟았다. 3구의 ‘祖江’은 漢江과 臨津江이 합류하는 곳이다. 4구의 ‘孫石風’은 이 지역의 전설이다.³²⁾ 그 지역의 전설을 소재로, 옛 지명을 그대로 활용했고 對를 통해 안배했기에 이조원이 “공교롭다 工巧至此”고 평한 것이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등을 자연스럽게 시편으로 옮겨 놓은 부분은 곳곳에 산견된다. 『西京雜絕』에서는 “백마 타고 조회된 일 천 년 세월 지났으나, 양복의 나루터는 여태도 그대로네. 朝周白馬已千秋, 楊僕樓船尚有洲.”라 했다. ‘周朝’는箕子가 백마를 타고 周나라에 조회한 일을 말하며, ‘楊僕’은 漢武帝 때의 장수로, 무제가 위만조선을 침략할 때, 樓船將軍 양복이 5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왕검성을 直攻했다고 한다.³³⁾ 역사의 현장에서 중국과 연관 있는 조선의 역사를 열거한 것이다. 또한 『熊州懷古』에서는 백제의 文周王이 공주에 도읍한 이후 남부여로 천도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자신 또한 그 길을 따라가는 정경을 읊었다.³⁴⁾ 공주에서는 당나라가 이곳에 熊津 都督府를 설치한 사실을 회상하면서,³⁵⁾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수 劉仁願과 劉仁軌를, 백제의 충신인 成忠과 階伯을

떠올렸고³⁶⁾ 백제를 점령한 薛仁貴와 공주에 와서 『雙樹亭碑』를 찬한 申欽을 회억했다.³⁷⁾ 『滿月臺懷古』에서는 자신의 선조인 고려 高宗때의 名臣인 柳暉을 기렸다.³⁸⁾

영사시나 회고시로 분류할 순 없지만, 여타의 작품에서도 조선의 지리와 관련된 역사를 적극 소개했다. 楊花渡에서 읊은 작품에서는³⁹⁾ 중국 청대 시인인 尤展成이 竹枝詞로 이 강을 소개했다고 하면서 중국에 소개된 조선의 지명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⁴⁰⁾ 또한 마포에서 지은 작품에서는 “사신은 오지 않고 섬에 구름 깔리었고, 고운 공주 죽고 나니 고개 꽃도 수심 겁네. 韓使不歸島雲白, 蒙姬一去峴花愁.”라 했다.⁴¹⁾ ‘韓使’는 고려의 名臣인 金澍다. 마포 남쪽의 밤섬 [栗島] 이 김주의 유허지다. 김주는 고려 말에 중국으로 사신 갔다가 돌아오다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 고려가 이미 혁명했다는 소리를 듣고 3일을 통곡하다가 인편에 朝衣를 집안사람에게 보내어 招魂하여 장례를 지내도록 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중국으로 들어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蒙姬’는 元나라 공주이며, 花峴은 龍山 서쪽에 있는 고개이다. 용산에는 고려의 行宮 터가 있는데, 元나라 공주가 이곳에서 죽었다고 한다. 영제는 회고시나 영사시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품에서도 조선의 구체적인 지명을 그대로 시 속에 담았고 그 지명과 관련된 인물 혹은 역사적 사실을 함께 서술하여 자신의 관심을 그대로 표명했

31) 『穴口津舟泊』

32) 고려 高宗이 조정을 이끌고 개경을 떠나, 사공 손돌 [孫石] 의 배를 타고 강화도로 가는데, 손돌이가 험한 물길을 가다가 의심을 받고 억울하게 죽었다. 손돌은 죽으면서도 임금의 안전을 위해 바가지를 물에 띄우고 그것을 따라가면 뱃길이 트일 것이라고 아뢰 후 참수되었다. 이후 바가지를 좇아 험한 물길을 무사히 빠져나왔다. 왕은 비로소 잘못을 깨우치고 손돌을 후히 장사지내주고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해 사당도 세웠다. 이 뱃길목을 지금도 손돌의 목을 벤 곳이라 하여 ‘손돌목’이라 부르며, 기일인 음력 10월 20일 즈이면 손돌의 원혼이 바람을 일으킨다고 한다. 이 때에 거센 바람을 ‘손돌이바람’이라 한다.

33) 『史記』 『朝鮮列傳』에 보인다.

34) 『熊州懷古』 “文周開國已千年, 公字山青哭杜鵑. 吹笛阜蘭寺裏去, 南扶餘樹暮帆前.”

35) 『熊州館歲暮吟』 (3) “紅梅江臘半凋殘, 車嶺以南不甚寒. 白馬江聲通百濟, 古熊州路拱三韓. 舊開幕府唐都督, 新逐絃歌宋判官. 可笑蓋公無一事, 廚傳日日費豬肝.”

36) 『早春同宋詒註昆季登眺鳳凰山, 嚮艾酣飲.』 “……威畧思願軌, 貞忠用成階. ……”

37) 『雙樹城二十韻, 寄愜官玩亭.』 “……東征開韓府, 南勒申符銘. ……”

38) 『滿月臺懷古』 “破碎花輒認故宮, 仙人橋外柳暉籠. 異鄉筍候催愁裏, 勝國風烟似夢中. 麗水高山徒歷歷, 落花啼鳥更恩恩. 緬憶吾家文正相, 韓聲磔磔此擘彤.”

39) 『楊花渡』 (2) “中國詞人尤展成, 竹枝偏說此江名. 明沙細岬知何限, 好是楊花渡口行.”

40) 尤展成 지은 『外國竹枝詞』 100수 중, 조선 죽지사가 4수 있다. 그 중 “양화도 나루에는 살구꽃이 붉은데, 팔도의 노래는 동국의 풍속일세. 비경이란 여도사가 몸시도 생각나니, 광한궁에 올라서는 상량문을 지었다지. 楊花渡口杏花紅, 八道歌謠東國風. 最憶飛瓊女道士, 上樑曾到廣寒宮.”란 작품에서 양화도를 언급한 바 있다.

41) 『同燕巖烟菴游麻浦』

다. 42)

이는 역사지리학자로서의 변모를 드러낸 것으로 역사나 지역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작업이다. 이는 補闕의 성격으로 쓴 『발해고』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문헌이 인멸되고 연구가 되지 않은 역사에 대한 애정이며, 역사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대부분의 작품이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한 애상적 정조가 주를 이루어 다소 아쉬움으로 남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해 포핌이 가해진 작품도 있어 주목을 끈다.

자하동 골짜기엔 잡초만 무성하여	紫霞洞裏艸霏霏
말 타고 함께 놀던 궁녀는 보이잖네.	不見宮姬並馬歸
이곳은 辛王이 노닐던 곳이라	爲是辛王行樂地
지금도 오히려 쌍쌍이 제비 나네.	至今猶有燕雙飛 ⁴³⁾

紫霞洞 골짜기에 잡초만이 무성함을 보고 무상함을 읊은 작품이다. 고려 禡王은 총애하던 기생 燕雙飛로 하여금 활을 차고 피리를 불고 용을 수놓은 옷을 입게 하고서는 항상 고삐를 나란히 한 채 유람했다고 한다. 2구의 ‘宮姬’와 4구의 ‘燕雙飛’가 바로 그녀이다. 3구에서는 ‘우왕’이라 하지 않고 ‘신왕’이라 했다. 이는 고려 恭愍王의 아들로 여기지 않고 辛旽의 아들로 여긴 것인데, 신돈의 전횡과 고려멸망에 대한 개탄이 묻어난 대목이다. 역사가 서린 공간에서 역사적 인물을 회상하면서, 그 인물들에 포핌을 가했다.

영재는 역사적 공간에서 자연과 인간, 과거와 현재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애상적 정조만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현재의 삶에 관심에 쏟고 현장감 있고 생동감 넘치는 삶의 현장을 적극적으로 시화했다.

42) 영재는 영사시나 회고시뿐만 아니라, 여타의 작품에서도 水標橋, 孝經橋, 蜻蛉橋, 第五橋, 清流壁, 轉錦門, 拱北樓, 大通橋, 紫閣峯 등의 조선의 지명이나 건물 명을 그대로 작품 속에 가져왔다.

43) 『松京雜絕』(2)

수레 방울 딸랑딸랑 온 거리에 가득하고	郎當征鑼滿通衢
객점의 새벽닭은 꼬끼오 울어대네.	店舍晨鷄喔嗶呼
오정문 동편에는 등 그림자 어지럽고	午正門東燈影亂
장사치들 외치노라, “담배 사세요.	市兒叫賣淡婆姑 ⁴⁴⁾

번화한 송경의 새벽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1구에서는 새벽부터 길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북적거리고 활기 넘치는 모습을 ‘郎當’이라는 방울소리로 묘사했고, 2구에서는 연달이 울어대는 닭 울음소리를 ‘喔嗶’으로 표현했다. 3구에서는 새벽 등불에 어지러운 그림자를 통해 분주한 모습을 드러냈으며, 4구에서는 새벽부터 담배 파는 장사치들의 소리를 직접 인용하여 활기차고 시끌벅적한 시정의 모습을 청각과 시각을 통해 담아냈는데, 역사의 현장에서 느끼는 애상적 어조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역사에 대한 포핌보다도 생동하는 현재의 삶에 무게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西京雜絕』에서는 상선들로 북적거리는 모습을 번화한 강남의 항구에 견주었는데,⁴⁵⁾ 이 또한 동일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천만 가옥 모두 다 잿더미 되었고	門千戶萬揚成灰
남은 강산 봄만이 다시금 찾아오네.	剩水殘山春又來
취적교 주변으로 담청놀이 나가고	吹笛橋邊踏青去
예성강 강가에서 고기잡고 돌아오네.	禮成江上打魚回 ⁴⁶⁾

吹笛橋는 개성 서쪽에 있는 다리로, 신선이 피리 불던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 고려시대에는 人家가 밀집해 있었다고 한다. 1,2구는 이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고려 적 번화했던 가옥들은 모두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졌지만, 산천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다. 일회성, 유한성을 지닌 인간사의 허무함

44) 『松京雜絕』(3)

45) 『西京雜絕』(3) “船旗獵獵聚城根, 此似江南何處村. 秋後恨無荷十里, 同門是湧金門.”

46) 『松京雜絕』(4)

이 반복성, 무한성을 지닌 자연과 대비되면서 애상이 정점에 이른다. 게다가 그때의 산천도 ‘剩殘’이라 하여 비애감을 조성했다. 이어 3,4구에서는 담청놀이와 고기잡이를 하는 현재의 구체적 삶의 현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취적교와 예성강은 옛 이야기가 전해오는 공간이지만, 지금 현재에는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고 있지만, 현재적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샷갓 쓰고 긴 땡기머리를 하는 송경 여인만의 특징과 한식날 친정을 찾는 송경의 풍속을 시화했는데,⁴⁷⁾ 이 역시 현재적 삶에 무게를 둔 결과이다.

영재는 유적지에서 다량의 작품을 지었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이상적 정조다. 영사시나 회고시의 대략적인 내용은 자연과 대비되는 유한한 인간사에 대한 무상함이 주를 이루어 다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경향인 강한데 반해 영재는 그러한 인생무상의 비애감에 휩싸이지만은 않았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나 지명 등을 다채롭게 소개하면서 역사지리학자적인 면모를 과시했다. 또한 현실에 시선을 돌리고 당대의 풍속 등 현재적 삶의 양태를 직시하고 이를 그대로 시화했다. ‘사가’ 중 우리나라의 인명이나 지명의 활용도가 현저하게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다.⁴⁸⁾ 이는 「발해고의 서문」에서 영재가 스스로 밝혔듯이, 공백으로 남겨질지 모를 우리의 역사나 지리, 인물, 혹은 풍속을 정리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의 결과다. 또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바로 역사의 한 장이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중년에 『京都雜誌』를 집필하여 그가 살던 시대의 세시풍속을 설명하고 전달하려 한 것 역시 이러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3. 唐風의 추구하고 기발한 발상

3.1 唐風의 추구

‘有盛唐人風格’, ‘逼真唐音’, ‘唐音’, ‘聲情并美’와 詩聖인 杜甫에 건준 ‘老杜起法’, ‘工部詠物之工’, ‘直逼老杜’ 등의 평어는 모두 영재의 唐風 성향을 파악한 것이다. 이는 작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회화성이나 음악성을 추구한 형식적 측면도 고려된 평이다.⁴⁹⁾

가만히 활발하게 노는 걸 보네	靜觀多活潑
네모난 연못의 난간 가에서.	方沼更欄邊
팔딱팔딱 뛰는 놈, 당당한 녀석	策策堂堂者
힘차게 가는 녀석, 우물거리는 놈.	洋洋圍圍然
둥둥 뜬마음 멀리 갈 줄 알겠고	泛情知縹緲
깊이 잠긴 모습은 어여쁘구나.	沈態徒嬋娟
쳐지 바뀌면 외려 무엇 같을까	易地還何似
하늘에는 훨훨 나는 소리개 있네.	雲天有戾鷲 ⁵⁰⁾

물고기가 노는 모습을 눈앞에 그려 놓은 듯 세밀하게 묘사하여 생동감과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1구의 ‘活潑’은 入聲이 반복되어 물고기의 동작을 시원스럽게 나타냈다. 3구의 ‘策策’은 疊字이면서 雙聲과 疊韻으로 물고기의 팔딱거림을, ‘堂堂’은 첩자이면서 쌍성과 첩운을 겹쳤고 陽韻으로 밝고 크고 시원스러운 동작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구의 ‘洋洋’은 첩운과 양운으로 시원스럽고 자연스럽게 지느러미질하는 물고기의 모습이

47) 『松京雜絕』(1) “愛儂雙綬尺來垂, 洽過田中白鷺鷥, 寒食歸寧簞笠小, 蕪城疎雨不禁吹.”

48) 김윤조, 앞 논문, p.58 참조. 우리나라의 지명이나 인명을 인용한 횡수는 유득공 44종 51건, 이덕무 18건, 박제가 6건, 이서구 15건이다.

49) 梁慶遇는 『霽湖詩話』에서 “당송시의 구별은 격률과 음향에 달려 있다. 唐宋之辨, 在於格律音響間.”라 하여 송시와 변별되는 당시의 특징으로 음악성을 꼽았다.

50) 「觀魚」(3)

며, 「圍圍」역시 비틀거리는 물고기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 놓은 듯 하다.⁵¹⁾ 첩자나 쌍성 혹은 첩운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사물의 모습을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묘사했을 뿐 아니라, 음악적인 효과도 극대화시켰다.

반정균은 「一瓢亭感舊」란 작품에 대해 “성정이 모두 아름다워 감개함이 뛰어나다. 聲情并美, 善於感慨.”고 평했다.⁵²⁾ 이는 정감을 올곧게 전달할 수 있는 시어의 활용이나 시어의 종성을 유성음이나 모음을 사용하여 발음상의 음악성을 추구했으며, 그러한 유려한 가락 속에 자신의 정감을 효과적으로 담은 것에 대한 평이다. 반면, 「田舍夜飲」에는 거친 시어의 사용이 빈번하다. 「榴榴」은 마른 딸나무의 거친 모습을, 「轟笑轟談」은 왁자지껄한 모습, 「衝虎」는 한 잔 술에 샘솟는 의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낸 시어다.⁵³⁾ 시어의 적절한 사용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배가시킨 경우다.

영재는 ‘사가’의 다른 시인에 비해 助字와 疊語의 활용이 두드러진다.⁵⁴⁾ 조자나 첩어를 통해 작품의 전체 분위기를 배가시켜 생동감과 현장감을 구비했으며, 음악적 효과도 거두었다.

백마 타고 조회턴 일천년 세월 지났으나	朝周白馬已千秋
楊僕의 나루터는 여태도 그대로네.	楊僕樓船尚有洲
대동강 물 밤낮으로 넘실넘실 흐르건만	泃水湯湯流日夜
현우초 풀빛이 수심을 자아나네.	蘓芋艸色使人愁 ⁵⁵⁾

西京에서 지난 역사를 회고하며 지은 작품이다. 1,2구에서는 백마타고

周나라에 조회 갔던 箕子와 대동강을 거슬러 왕검성을 공격했던 楊僕을 떠올렸다. 이어 3,4구에서는 눈앞에 전개된 경물을 읊었다. 지난 역사를 품은 채 흐르는 대동강과 강가에 자라는 현우초를 통해, 지난날과 대비되는 회고의 감개를 드러냈다. 덧없이 흘러간 인간의 역사와 덧없이 변해가는 것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강물과 변함없이 반복되는 풀빛을 효과적으로 대비시켜 무상함을 강조했다. 이 작품에 대해 이조원은 “성당인의 풍격이 있다. 有盛唐人風格.”고 평했으며, 반정균 역시 “당음에 꺾진하여 영탄을 그칠 수 없다. 후세에 반드시 전해질 것이다. 逼真唐音咏歎不已, 必傳.”라 극찬했다. 반정균이 「唐音」이라 평가했던 「同燕巖炯菴游麻浦」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읊고 있는데, 시어의 안배를 통해 음악성을 추구하면서 유한하여 허망한 인간사와 자연 경물을 적절하게 대비시켜 여운을 증폭시켰다.⁵⁶⁾

성당시 특유의 미학으로 興象을 들 수 있다. ‘興’은 사물에 의탁해 감흥을 일으킨다는 의미이며, ‘象’은 物象으로 작품 속에 묘사된 사물의 형상을 말하다.⁵⁷⁾ 흥과 상의 대립과 통일, 조화와 융합이 감동과 여운을 일으키는데, 앞서 살핀 작품 역시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사의 유한함이 끝없는 시름을 자아낸다. 게다가 짙막한 시형과 간결한 표현, 암시와 함축 등을 통해 言有盡而意無窮의 기법을 십분 활용했으며, 前情後景의 안배로 여운을 극대화했다. 이것이 바로 성당시와 흡사하다고 평가받는 이유이다.

당시에 대한 추구는 두보 필법과의 유사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 누가 강을 향해 피리를 부는가	何人吹笛向江關
남쪽에 온 선비는 돌아가지 못했다네.	南國布衣殊未還
판잣집의 저녁연기 눈 위로 피어나고	板屋人烟連雪外
붉은 정자 난간은 구름에 가리었네.	紅亭雉堞半雲間

51) 정량완, 앞의 책, pp.90~93 참조.

52) 「一瓢亭感舊」 “溪路樵歸晚笛愁, 枯荷極目黯經秋. 白雲紅樹新精舍, 落日青山故見州. 苔暗謝公携妓徑, 葉飛孫楚讀書樓. 一瓢亭外洋洋水, 摠是崙翁去後流.”

53) 「田舍夜飲」 “燒殘榴榴氣騰紅, 轟笑轟談夜屋中. 濁酒三盃衝虎去, 婆婆箕子一林風.”

54) 김윤조, 앞 논문, 참조. 영재의 시의 助字는 11종 24자이며, 첩어는 74종이며, 89회 사용했다.

55) 「西京雜絕」(6)

56) 「同燕巖炯菴游麻浦」 “龍山下客橫舟, 悵悵相望江上樓. 韓使不歸島雲白, 蒙姬一去峴花愁. 夕陽杳杳孤帆下, 泃水洋洋千里流. 無限西湖懷古地, 年年芳州滿汀洲.”

57) 陳伯海 지음/ 李鍾振 옮김, 『당시학의 이해』(사람과 책, 2001.) pp.52~70 참조.

슬픔이 가득하여 할 말을 잃었고	悲含口裏斯何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만 되버이네.	念結刀頭只是環
拱北樓 올라서 둘러보니 흐뭇해라	拱北樓中回首好
푸르른 산들이 고향 산과 비슷해서.	靑靑有似故鄉山 ⁵⁸⁾

歲暮에 공주에서 자신의 심회를 읊은 작품이다. 1,2구에서는 타향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말했고 3,4구에서는 주변 경치를 묘사했다. 5,6구에서는 고향 생각을 드러냈으며, 7,8구에서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조원은 “칠언 율시의 풍격이 두보와 매우 꺾진하다. 七律氣格直逼老杜”고 평했는데, 이는 내용뿐만 아니라, 章法이나 대구를 활용, 四聲의 쓰임 등의 형식적인 측면이 율시를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했다는 두보의 창작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율시의 경우 대부분 1,2구는 배경 설정, 3~6구는 대구를 통한 경물 묘사, 7,8구는 주제라는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두보는 함련과 경련의 대구에 변화를 추구한 點題→描寫→言事(言情)→結束의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⁵⁹⁾ 위 작품 역시 이와 동일한 구조다. 즉, 반드시 대를 이루어야 하는 3,4구와 5,6구에 변화를 주어 각각 景과 情을 담았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히 경물만은 묘사하는 구조에 비해 시인의 감정과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담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크게 보자면 두보가 즐겨 사용한 前景後情의 배치도 눈에 띈다. 또한 1구의 ‘吹笛’은 3,4구의 경물로 연결되고 2구의 ‘布衣’는 5,6구의 정감으로 연결된다. 對仗句로 시상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킨 것이다. 두보 칠언율시의 또 다른 특징으로 四聲遞用을 들 수 있다.⁶⁰⁾ ‘사성체용’은 出句의 끝 자에 平上去入 四聲을 모두 갖추는 것으로,

두보는 이를 준수하여 칠언율시의 음악미를 추구했다. 영재의 작품 역시 ‘關(平), ‘外(去), ‘關(入), ‘好(上)로 사성체용을 실현했다. 粘對는 위 일련의 對句와 아래 일련의 出句의 두 번째 글자의 平仄이 서로 같은 것을 말하는데,⁶¹⁾ 두보의 경우 모든 율시가 완벽한 접대를 이루고 있다.⁶²⁾ 영재의 작품 역시 ‘人’과 ‘亭’, ‘舍’와 ‘靑’이 모두 平聲으로 접대이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완곡하게 표출했다.⁶³⁾ 5,6구에서 고향에 대한 말 못할 그리움을 직접 언급했지만, 7,8구에서는 고향산과 닮은 산이 있기에 이를 보면 향수를 달래려 했다. 감정을 다듬어 완곡하게 마무리 했지만, 사소한 물경으로 자신을 위안하려는 모습이 더욱 애절하게 만드나.

觀物의 성격을 띤 영재의 작품은 17수 가량 있는데, 여기에서도 두보 詠物詩와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또렷한 울음소리 애절도 한데	的的聲逾切
가만히 한밤중까지 듣고 있다네.	潛聽到夜分
사람들 귀뚜라미 울다 말하나	人雖聞唧唧
마음속의 무언가를 말하려 한 듯.	情必有云云
부르고 화답함은 이미 알거니	已識相求應
원망하지 않음을 어찌 알리오.	安知不怨羣
처량한 소리 내 곁에 다가오나니	淒涼近我戶
무슨 일로 듣기가 힘들단 말고.	何事不堪聞 ⁶⁴⁾

58) 『熊州館歲暮吟』(4)

59) 崔宇錫, 『沈·宋 律詩와 杜甫 初期 律詩의 비교 고찰』(『중국어문학지』 25집, 중국어 문학회, 2007.) pp.338~340 참조.

60) 김준연의 『당대 칠언율시 연구』(역락, 2004.)와 노우정의 『杜甫 七律의 成就 研

究』(『중국어문학지』 18집, 중국어문학회, 2005.) 참조.

61) 粘對에 대해서는 崔南圭의 『杜甫 五言律詩의 類型 연구』(『중국어문학』 38집, 2001.) pp.66~67 참조.

62) 崔宇錫, 앞 논문, pp.330~333 참조.

63) 노우정, 앞 논문, pp.95~103 참조. 이 논문에서는 두보 칠언의 특징으로 풍격의 확대를 꼽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완만하게 변화시켜 선회해 표출한 점을 들었다.

64) 蟋蟀(2)

가을밤 애절한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정회를 기탁한 작품이다. '的的'과 '唧唧'은 귀뚜라미 울음소리다. 1구에서 애절하다고 한 것은 무언가를 간절히, 다정히 말하려 한다는 4구로 연결된다. 후반부에서는 부르고 화답하는 소리이지,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비록 처량한 소리이지만, 자신의 처지와 견주어보면 그리 다를 것이 없기에 달갑게 여기면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귀뚜라미를 자신의 벗으로 인식했는데, 이는 자신의 심사를 알아줄 이 없는 고독함을 역설적으로 부각시킨 대목이다. 사물에 투영하여 자신의 속내를 조심스럽게 드러낸 셈이다.⁶⁵⁾

이조원은 “표현이 세밀하여 두보가 사물을 그린 공교로움을 얻었다. 摹寫入細得工部詠物之工”고 평했다. 이는 일차적으로 사물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이를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묘사한 것에 대한 평이다. 또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진지한 접근으로, 사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신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에 대한 언급이다. 꼼꼼한 관찰을 통해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실물을 묘사하면서 그 속에 인생에 대한 관조나 사색을 투영한 두보의 영물시와 유사한 분위기다.⁶⁶⁾ 두보 영물시의 특징과 유사한 일면도 있지만, 관련 고사를 동원하여 사물과 자신의 정회를 간접적으로 제시했다는 차별성도 있다.

수염 다리 모두 가을 전령이라	鬚腿皆秋使
우는 소리에 마음만 스산하네.	軋鴉自不禁
싸움은 본래 의지 응당 아니고	鬪應非素志
농 안에서 참 소리 어찌 내리오.	籠豈有眞音
젓은 돌 틈에 몸을 의지하고선	石隙依來潤

65) 杜甫의 促織 (『全唐詩』 권225) “促織甚微細, 哀音何動人. 草根吟不穩, 牀下夜相親. 久客得無淚, 放妻難及晨. 悲絲與急管, 感激異天真.”과 그 의경이 유사하다.

66) 장준영, 『두보 영물시의 정신세계』 (『중국학연구』 31집, 중국학연구회, 2005.) 참조. 이 논문에서는 두보 영물시의 특징으로 고쳐하는 자아의 투영, 애국애민 정신의 발현, 만물일체사상과 박애주의, 인생에 대한 관조와 사색을 들었다.

이끼 빛 질푸른 곳서 뛰어노누나.	苔光躍處深
한 해가 저물어 가니 시인은	詩人歲暮意
뒹집 쥐고 마당을 거닐어보네.	負手行堂襟 ⁶⁷⁾

자연에서 자신의 천성대로 살아가는 귀뚜라미의 모습을 읊은 작품이다. 이러한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3,4구에서 고사를 이용했다. 3구의 ‘鬪’는 뿔나리 사람들이 귀뚜라미가 싸움을 좋아한다고 여겨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한 풍속과 관련 있다.⁶⁸⁾ 4구의 ‘籠’은 귀뚜라미를 잡아 담아 둔 金籠이다. 開元 연간에 궁중 여인들은 귀뚜라미를 잡아 통속에 넣어 베개머리에 두고 밤새도록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⁶⁹⁾ 이는 모두 사물의 천성을 인간의 인위적 잣대로 재단한 것으로, 본연의 모습을 잃은 것이다. 이어 5,6구에서는 본연의 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물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7,8구에서는 자연 속에서 천성대로 살아가는 사물의 모습을 즐기려는 시인을 묘사했다. 감정의 인위나 조작에서 벗어나 타고난 천성대로 살아가려는 자신의 의지를 사물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시화한 것이다.

연못의 물고기를 보면서 “호랑의 일 그 얼마나 즐거웠을까, 장한은 가을 강 생각 질펀했다오. 濠梁差可樂, 張翰謾秋江.”라 읊조렸다.⁷⁰⁾ ‘濠梁’이란 莊子가 惠子와 만나 濠梁 위에서 뛰노는 물고기의 즐거움에 대해 문답한 일이며,⁷¹⁾ ‘張翰’은 낙양에서 벼슬살이 하다가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고향의 순채국과 농어회가 그리워,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인물이다.⁷²⁾ 이 역시 사물과 관련된 고사를 통해 호탕하고 방달한 자신의 심사를

67) 蟋蟀(4)

68) 姚福, 『庚己編』 “吳谷喜鬪蟋蟀, 多以決賭財物.”

69) 王仁裕, 『開元天寶遺事』 “每至秋時, 宮中妃妾輩, 皆以小金籠捉蟋蟀, 閉於籠中, 置之枕函畔, 夜聽其聲, 庶民之家皆效之也.”

70) 『觀魚』 (1) “潭上觀魚處, 時時不敢登. 忽來兒一一, 何去婢雙雙. 偶觸如相怪, 方嬉却自憍. 濠梁差可樂, 張翰謾秋江.”

71) 『莊子』 『秋水』 에 보인다.

드러냈다.

영재는 신변사물의 변화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사물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에 자신의 감회를 담아내면서도 사물과 관련된 고사들을 적극 활용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물과 자신의 정회를 소개했다. 이는 두보 영물시와의 유사점에서 벗어난 영재만의 개성적인 측면이라 하겠다.

당시풍에 대한 추구는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시켜 애잔한 정조를 자아냈고 끝없는 흥감에 젖어들게 하는 내용면에서도 발현되었다. 또한 첩자나 조자 등을 통한 음악성과 감각적인 시어 등을 통한 회화적인 측면에서도 심분 발휘되었다. 회고시나 영물시의 경우 두보의 시풍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당시풍의 추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재가 당시풍에만 경도되어 있었다고 할 순 없다. 송시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 강렬한 사회의식이나 역사의식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영재는 자신의 심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시풍을 활용해 자신만의 개성을 담으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3.2 전고의 기발하고 재치 있는 활용

‘사가’ 중 초정은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新奇한 시세계를 실현했다.⁷³⁾ 영재 역시 기발하고 재치 있는 발상을 통해 자신의 정감이나 상황을 묘사한 개성적인 일면이 보이는데, 초정의 신기한 작품과는 변별된다.

매화꽃 어여쁘게 남은 봄빛 뽑내고 英石이 아름답지만 李夫人은 아니라고. 한 무제 임포는 미친 듯 빠졌었지	蠟花妍淨媚餘春 英石輕盈恐未眞 漢武林漣癡絕想
--	-------------------------------

72) 『晉書』 「張翰傳」에 보인다.

73) 박종훈, 초정 박제가 초기 시 고찰 (『한국언어문화』 35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pp.151~156 참조.

매부인을 이부인에 견주어 본다네.

梅夫人比李夫人⁷⁴⁾

靑莊館 李德懋가 밀랍을 녹여 매화를 만들고서 輪回梅라 하자, 영재가 이를 읊은 작품이다. 1구에서는 밀랍으로 매화를 만들자 마치 봄빛을 뽑내고 있는 듯 어여쁘다고 했다. 이어 2구에서는 漢武帝가 李夫人이 죽은 뒤 몹시 그리워 英石으로 그 형상을 만들었다는 고사를 인용했다.⁷⁵⁾ 이는 청장관이 만든 윤희매가 진짜 매화는 아니지만 영석으로 만든 이부인의 형상처럼 그 모습이 실제 매화와 너무도 흡사하다는 칭송이다. 3구에서는 아예 西湖에 은거하면서 매화를 아내 삼았던 林逋까지 가져와, 매화에 푹 빠져있던 청장관을 그렸다. 고사를 시 전반에 두루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오묘하게 조합했기에, 이조원이 “오묘한 생각이 정묘한 경지에 들었다. 妙思入微”고 평한 것이다.

기발하고 재치 있는 발상을 통해 자신의 정감이나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했는데, 그 중 다음 작품은 시의 소재 선택과 시상 전개에 있어 눈에 띈다.

구름 노을 집안이라 九臯를 떠올리고 胎仙을 水仙의 호방함에 견뵈보네. 생각건대, 물결 위 비단 버선 먼지 없이 평생토록 발 들어 걸음을 옮겼으리.	家世雲霞憶九臯 胎仙強比水仙豪 料君無一凌波襪 已慮平生舉趾高 ⁷⁶⁾
--	---

74) 『輪回梅』(1)

75) 漢武帝가 사랑하는 李夫人을 잃은 뒤에 몹시 그리워하다가 방술사인 李少君에게 이부인의 혼을 불러오게 하자, 이소군이 “멀리서 볼 수는 있지만, 장막 속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후해의 물 속에 潛英石이 있는데, 그 색은 푸르고 깃털처럼 가벼우며, 추위가 닥쳐도 온기를 품고 있고 무더위 속에서도 차가우니, 이에 사람의 형상을 새기면 진짜 사람과 똑 같습니다. 이 석상을 세우면 부인이 올 것입니다.”라 말했다. 이에 석상을 세우고 기다리자 이부인이 장막 안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한 무제가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이소군이 막았고 다시 돌아보는 순간 사라졌다고 한다. 王嘉의 『拾遺記』 「前漢上」에 보인다.

76) 『素玩亭鶴鑿井』(2). 『洽齋集』에는 「素玩亭居士鶴鑿井輓」으로 되어 있다.

우물에 빠져 죽은 학을 애도하는 만사로, 각 구절마다 고사를 인용하여 물에 빠져 죽은 상황과 학의 고고한 자태를 묘사했다. 1구의 '九臯'은 학을 가리킨다.⁷⁷⁾ 학을 九臯君이라 하는데, 으스스한 못가에 숨어서 울어도 그 소리가 하늘 높이 퍼지는 것이 마치 군자의 기풍을 닮았다는 데서 연유한다. 2구의 '胎仙' 역시 학의 별칭으로, 160년이 지나 암수가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잉태된다는 것에서 기인했다.⁷⁸⁾ '水仙'은 屈原을 가리킨다. 굴원이 멩라수에 빠져 죽자,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여 수선이라 불렀다. 여기에서는 물에 빠져 죽은 학을 굴원에 견준 대목이다. '구고'와 '태선'의 학을 '수선'으로 연결시켰으며, 3구에서는 수선화의 자태를 예찬했는데,⁷⁹⁾ 이는 물에 빠져 죽은 상황을 외둘러 표현한 것이며 학의 고고한 자태를 수선화에 비유한 부분이다. 4구의 '擧趾高'는 발을 높이 들고 다닌다는 말로,⁸⁰⁾ 비록 고사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여기에서는 학의 자태에 대한 칭송이다.

학과 관련된 고사를 동원하여 학을 군자와 신선에 비유하면서 작품을 시작했다. 이어 학이 물에 빠져 죽은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굴원과 수선을 가져왔다. 수선에서 촉발된 시상은 다시 洛水에서 익사하여 水神이 되었다는 伏羲氏의 딸로 연결되었고 수선화와 학의 고고한 자태를 '擧趾高'라는 고사를 통해 마무리했다. 시상 전개과정에서의 기발하고 재치 있는 연결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77) 『詩經』『鶴鳴』, “학이 九臯에서 우는 소리가 하늘에 들린다. 鶴鳴于九臯, 聲聞于天.”란 구절이 있다.

78) 『相鶴經』에 보인다.

79) 3구의 凌波襪은 수선화의 자태를 예찬한 말로, 伏羲氏의 딸 宓妃가 洛水에서 익사하여 水神이 되었다는 전설에 의거해 曹植이 지은 『洛神賦』 “물결 헤치며 사뿐사뿐 거닐면 비단 버선에 안개 먼지가 일도다. 凌波微步, 羅襪生塵.”에 보인다.

80) 楚나라 武王이 아들 屈瑕에게 羅나라를 치라는 명했는데, 초나라 대부 鬬伯比가 굴하를 전송하고 돌아와서 말하길 “굴하는 반드시 패전할 것이다. 그가 발을 높이 들어 걸음을 걸으니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莫敖必敗, 擧趾高, 心不固矣.”라 했다. 『春秋左傳』 桓公 13年條에 보인다.

『貞西夜集』에서는 “진창이 미끄러워 나아가지 못하고, 두 새의 울음 속에 객수만 질어가네. 泥滑滑時行不得, 二禽言裏客愁添.”라 했다. ‘泥滑滑’은 진흙이 너무 미끄러워 걸을 수 없다는 뜻으로, 뜰부기의 울음소리를 형용한 말이다. ‘二禽’은 催歸와 喚起를 말한다. ‘최귀’는 杜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이며, ‘환기’는 봄 새로 五更부터 날이 썰 때까지 울면서 사람이 일어나기를 재촉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⁸¹⁾ 鳥名을 활용하여 돌아가고 싶지만 그리 할 수 없는 심정과 그로 인해 잠들지 못하고 애써 날 새기를 바라는 심정을 외둘러 드러낸 기발한 발상에 매료되어 이조원은 “매우 새롭다. 新極”고 평했다. 『觀魚』란 작품에서는 연못에서 노는 물고기를 “서남북을 두루 돌며 헤엄을 치고, 몸은 을병정 모두 갖추었구나. 游匝西南北, 身兼乙丙丁.”라 묘사했는데, 이조원은 이를 ‘奇句’라 평했다. 이는 물고기 머리뼈를 ‘丁’, 내장을 ‘乙’, 꼬리를 ‘丙’이라 한다는 것을 적절하게 작품에 구사했고⁸²⁾ 더불어 ‘西南北’과 대를 맞춘 것에 대한 평이다. 기이한 발상과 재치 있는 표현이 작품의 묘미를 더했다.

…(上略)…

강호에서 놀다가 술서 끊으니
어느 한 순간 잠깐 사이라네.
고기야, 내가 너를 먹을 테이니
너는 죽어도 절대 날 원망 마오.
伏羲氏가 그물을 만들었었고
周나라는 고기 잡는 벼슬 있었지.
공자는 크나큰 성인이지만
가늘게 썬 회를 좋아하였지.
맹자 또한 좋아하는 것이었지만
츄츄만 그물만은 경계했다오.

江湖與湯鑊
忽焉在須臾
魚兮我食汝
汝死勿怨尤
庖犧既結網
周官更置斂
仲尼大聖人
惟細膾是求
孟氏云所欲
沔嗟但數罟

81) 정민,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호형출판, 2003.) 참조.

82) 『爾雅』 “魚枕謂之丁, 魚腹謂之乙, 魚尾謂之丙.”

물고기야 멀리까지 도망을 가지	魚兮若遠引
어찌하여 나에게 잡히었느냐.	胡爲我禽乎
방어처럼 조심하지 못하고서는	魴鱖不自慎
마른 고기처럼 편지 보내진 마오.	枯魚莫寄書 ⁸³⁾

마포에서의 고기잡이 노래로, 다양한 고사를 차용하면서도 재치 있는 발상이 엿보이는 작품이다. 伏犧氏는 노끈으로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를 사냥하게 했으며, 周나라에는 고기를 잡는 ‘獻人’이라는 관직이 있었다고 하면서 孔子의 말을 빌려 너를 잡아먹는 날 원망하지도 탓하지도 말라고 물고기에게 당부했다.⁸⁴⁾ 또한 공자는 가늘게 썬 생선회를 싫어하지 않았고⁸⁵⁾ 맹자 역시 고기잡이를 통해 먹을 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대목을 인용하여,⁸⁶⁾ 성인들도 모두 고기를 잡아먹었으니 절대 원망하지 말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네가 멀리까지 도망갈 일이지 그리하지 못해 잡혔다고 하면서 돌연 잘못을 물고기에게 돌렸다. 잡혀 어물전에 있는 마른 고기가 방어 떼에게 편지를 보내 출입을 삼가라고 했다는 중국 古樂府의 내용을 인용하여,⁸⁷⁾ 출입을 조심하지 않은 물고기를 질타하기까지 했다.

기발하고 재치 있는 발상을 통해 웃음을 전해 주고 있지만, 이조원은 “잠깐 사이에 지은 것이지만 한 순간에 이치를 다 말했으니, 다른 작품과는 견줄 수 없다. 須臾構出, 一番道理, 此詩之所以不徒作也.”고 했으며, 반정균은 “말이 이치에 가까워 속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語亦近理, 不可使饜餐人藉口.”라 평했다. 이는 물고기에 대한 질타로 마무리 했지

만, 정작 자신의 행실을 성찰하게 만드는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내린 평으로 보인다. 또한 일상의 물고기 잡이를 엄정한 聖人까지 동원하여 그 정당성을 주장한 위트, 즉 기발한 발상에 주목한 것이다.

영재는 기발하고 개성적인 발상을 시화하기 위해 대상이나 자신의 정감을 고사나 전고를 통해 적절하게 표현했다. 대부분 고사나 전고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했지만, 그 내용의 일부만을 인용하거나 비틀어 자신의 정감을 보충한 경우도 있다.

…(上略)…	
田單은 소꼬리에 불을 놓았고	咄哉夜縱單
李牧은 소를 잡아 대접했다네.	欣然日椎牧
…(中略)…	
陳仲子는 거위 아니라 생각했었고	仲知非鵝鵝
子思는 번거로움 싫다 안했지.	思不憚僕僕
…(中略)…	
사람들 모두 고기 든 伊尹이요	人皆割烹賢
누군들 祭器 든 神主 아니겠는가.	孰非尊俎祝
…(中略)…	
불거진 이마 蔡澤도 기뻐했으며	魁顏喜躍取
제비턱인 班超는 날아 고기 먹었네.	燕隄誇飛蹴
순의 음악 이보다 어이 나올까	齊韶豈過此
노나라 계책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魯謀當問孰
…(中略)…	
음식 절제하라 성인 경계하셨고	節食聖人戒
먹기만 하는 것 지사 부끄러워했네.	徒哺志士慙
顏淵이 즐길 바는 한 바가지 물	一瓢顏所樂
거친 밥과 팔뚝 베고 자는 거였지.	蔬食肱亦曲
시를 지어 『내척』을 보충하여서	爲詩補內則
영원토록 내 절로 권면하리라.	永言以自勸 ⁸⁸⁾

83) 『麻浦打魚篇』

84) 『論語』『憲問』 “不怨天, 不尤人.”

85) 『論語』『鄉黨』 “食不厭精, 膾不厭細”

86) 『孟子』『梁惠王』 “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勝食也.”

87) 『古樂府』에 “마른 고기 물가 지나며 우는데,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네. 방어 떼에게 편지를 보내서 출입을 삼가라 했다네. 枯魚過河泣, 何時悔復及, 作書與魴鱖, 相教慎出入.”란 구절이 있다.

화로에 둘러 앉아 사슴 고기를 먹는 광경을 묘사한 작품으로, 전고나 고사의 활용이 돋보인다. ‘夜縱單’은 齊나라 田單과 관련된 고사로, 외로이 城을 지키고 있다가 천여 마리의 소에 붉은 옷을 입히고 뿔에 칼날을 매단 뒤, 소꼬리에 갈대를 묶어 불을 붙여서 성 밖으로 내몰아 燕나라 군사를 크게 격파한 내용이다.⁸⁹⁾ 비록 고사를 차용했지만, 단순히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으로, 고사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다음 구의 ‘日樵牧’은 趙나라의 李牧이 날마다 소를 잡아 선비들을 대접했다는 고사다.⁹⁰⁾

陳仲子是 齊나라의 청렴한 선비로 형이 받는 봉록이 의롭지 않다 하여 함께 살지 않고, 어머니를 떠나 살았다. 뒷날 집에 돌아가니 형에게 거위를 선물하는 이가 있었는데, 이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며 “이 껍뻍거리는 놈을 어디에 쓰겠는가.”라 했다. 얼마 뒤 어머니가 이것을 잡아주어 먹고 있었는데 형이 들어오며 “이건 껍뻍거리던 거위 고기다.”라고 하자 뛰어나가 모두 토해 버렸다.⁹¹⁾ 여기에서는 진중자가 거위 고기인 줄 모르고 맛있게 먹은 사실만을 斷章取義하여 고기 먹는 것을 결코 사양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변용했다. 이어 魯나라 繆公이 子思를 존경하여 사람을 시켜서 문안하게 하고 삶은 고기를 자주 보냈는데, 나중에는 자사가 불안해하면서 삶은 고기가 자기를 번거롭게 자주 절하게 하니, [使已僕僕爾亟拜也] 군자를 봉양하는 예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고사를 단장취의 했다.⁹²⁾ 고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예가 아니면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자사 또한 고기를 받고서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절을 할 만큼 고기를 즐겨했다는 일면만을 차용했다.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고사나 전고의 전체 내용과는 상반된 혹은

88) 『圍爐五十韻』

89) 『史記』 『田單傳』 에 보인다.

90) 『史記』 『李牧傳』 에 보인다.

91) 『孟子』 『滕文公』 에 보인다.

92) 『孟子』 『萬章』 에 보인다.

무관한 단장취의는 계속되었다. ‘割烹’은 잘라 삶은 고기로 伊尹과 관련된 다. “이윤이 堯舜의 道를 가지고 湯王에게 요구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음식 요리를 가지고 요구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란 孟子的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⁹³⁾ 그 본의와는 무관하게 사람들이 모두 고기를 먹고 있다는 의미로만 쓰였다. 다음 구의 ‘尊俎祝’은 祭器와 神主를 말하는데, 庖人이 음식을 잘못 만든다고 尸童이나 神主가 술 단지와 고기 그릇을 들고 그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莊子』의 내용을 인용했다.⁹⁴⁾ 『장자』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였지만, 여기에서는 모두들 맛있게 먹고 있다는 의미로 바꾸었다.

물론 고사나 전고의 본의에 충실한 부분도 있다. ‘魍顏’은 燕나라 蔡澤과 관련된 고사로, 불거져 나온 이마를 갖고 있기에 고기를 먹으며 부귀할 수 있다는 관상쟁이의 말을 인용하여 고기를 먹는 즐거움을 묘사했다.⁹⁵⁾ 또한 ‘燕頷’은 後漢의 班超가 제비턱이었다는 고사로,⁹⁶⁾ 제비턱의 骨相을 가지고 있기에 날아가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한 일을 차용했다. 반면 공자가 舜임금의 음악을 듣고 고기 맛을 알지 못했다는 일화를 가져왔지만,⁹⁷⁾ 이를 비틀어 순임금의 음악도 이 고기맛 보다는 못했으리라 반문하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다음 구의 ‘魯謀’는 魯나라의 계책으로, 齊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하자, 曹劌가 “고기를 먹는 자는 비루하여, 원대한 계책을 낼 수 없다.”라 했다는 고사를 들었다.⁹⁸⁾ 게걸스럽게 고기 먹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비루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문한 대목으로, 본래 고사와는 정반대의 의미로 쓰였다.

93) 『孟子』 『萬章』 “聞其以堯舜之道要湯，未聞以割烹也。”

94) 『莊子』 『逍遙遊』 “庖人雖不治庖，尸祝不越尊俎而代之矣。”

95) 『史記』 『范雎蔡澤列傳』 “先生曷鼻，魍顏，蹙鬚，……吾持梁刺齒肥，躍馬疾驅，懷黃金之印，結紫綬於要，揖讓入主之典，食肉富貴，四十三年足矣。”

96) 『後漢書』 『班超列傳』 “燕頷虎頭，飛而食肉，萬里侯相。”

97) 『論語』 『述而』 “子在齊聞韶，三月不知肉味，曰，不圖爲樂之至於斯也。”

98) 『左傳』 莊公 十年條 “食肉者鄙，不能遠謀”

이어 작품의 끝부분에서는 顏淵이 궁핍한 삶 속에서도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다는 일화를 동원하여 음식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면서, 이 시를 지어 권면하겠다고 다짐했다. 화로 곁에서 고기를 구어 먹는 자신들의 모습을 고사나 전고를 충동원하여 묘사하면서 고사나 전고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지만, 일면만을 단장취의하거나 비틀어 너스레를 떨기까지 하면서 음식을 절제하라는 교훈적 내용으로 마무리해 장난스러워 보인다.

상반된 분위기로 몰아가는 전개과정이나 고사나 전고의 자재로운 활용 등에 착안하여 이조원은 “기세가 우뚝하여 허공을 받칠 듯 하다. 氣勢突兀撐靑空”라 평했다. 반정균은 “한유와 맹교의 연구와 비슷하여 기이함을 다투는 듯 현란하며 뜻과 재주를 다 했으니, 버금간다 할만 하다. 似韓孟聯句, 爭奇炫異, 極意纂才, 亦足以副之.”라 했는데, 이는 음식 절제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 과정에서의 자유자재로 고사를 활용한 현란한 재주와 기발한 발상을 염두에 둔 평이다. 또한 “넓고 넘치는 듯한 위대한 작품으로 힘껏 펼쳐서 끝내 바름으로 돌아갔으니, 이것이 시인의 뜻일 것이다. 渾渾大篇, 極力鋪張, 而卒歸于正, 此詩人之旨.”라 했는데, 이 또한 작품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다가 음식 절제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평이다.

영재의 작품 중 기발한 발상에서 비롯된 개성적인 시풍이 구현된 작품을 살펴보았는데, 고사를 작품 전면에 내세운 점이 우선 눈에 띈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 고사를 나열하는 수준에 머문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오묘하게 조합하거나 외돌려 표현했다. 또한 시상의 전개과정에서도 기발한 발상을 재치 있고 자연스럽게 연결시킨 점을 높게 살만 하다. 고사나 전고를 십분 활용하고 본의와는 정반대의 쓰임이 되도록 일부만을 단장취의하거나 비틀어 인용한 기발한 발상과 재치가 돋보이는 작품을 양산했다.

4. 나오는 말

18세기 새로운 시풍의 중심에 있었던 영재의 초년 작품을 『한객건연집』의 이조원과 반정균의 평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도잡이나 위응물에 견준 평어를 통해 고담하고 충담한 삶의 지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념 속의 한적한 전원적 삶을 시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의 현장으로, 구체적인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위응물의 전원시와 차별되는 점임을 확인했다. 또한 고상한 삶을 추구하며 깨끗한 의지를 보인 작품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빚어진 괴리감이 자리하고 있어 비장함과 애절함에 배어나온다.

또한 영재는 우리 민족과 역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그대로 시화했다. 애상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였지만, 조선의 지리나 역사에 대한 적지 않은 정보도 담아냈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등을 자연스럽게 시편으로 옮겨 역사지리학자로서의 변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 중에서도 현실에 시선을 돌리고 당대의 풍속 등 현재적 삶의 양상을 소개한 점이 눈에 띈다.

영재는 조자나 접어의 활용 등을 통해 음악성을 구현했고 생동감과 현장감을 선사했다. 또한 회고시나 영물시에는 두보 시풍과의 유사성과 한 걸음 나아가 영재만의 개성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었다. 음악성의 추구뿐 아니라, 감각적인 시어를 통한 회화성의 추구는 당시풍의 추구로 이해할 수 있는 일단을 제공해 주었지만 이는 당시풍에의 정도로 속단할 수는 없다.

영재의 전체 작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사나 전고의 유티 섞인 활용이다. 고사나 전고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오묘하게 조합하거나 기발하고 재치 있게 시상을 전개한 점은 영재 초년 작품의 특징 중 하나이다. 전고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작품에 인용하기도 했지만, 일부만을 단장취의 하여 본래의 의미와는 상반대 의미로 활용한 점이 눈에 띈다.

영재의 초년 작품의 특성을 고구하는 것은 한 개인의 시풍에 대한 고찰이며 동시에 18세기 조선에 불어 닥친 새로운 시풍의 일단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영재뿐만 아니라, 강산 이서구, 초정 박제가, 형암 이덕무 등의 시세계에 대한 탐색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 시기의 혁신적인 시풍의 전면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韓客巾衍集』(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金澤榮, 『韶漢堂文集』
徐滢修, 『明臯全書』	梁慶遇, 『霽湖詩話』
柳得恭, 『洽齋集』	李德懋, 『清脾錄』
陶宗儀, 『輟耕錄』	王嘉, 『拾遺記』
王仁裕, 『開元天寶遺事』	姚福, 『庚己編』
周處, 『風土記』	
『論語』	『孟子』
『文選』	『史記』
『三國志』	『相鶴經』
『荀子』	『詩經』
『爾雅』	『莊子』
『晉書』	『春秋左傳』
『漢書』	『後漢書』

권호중, 『위응물시선』, 문이재, 2002.
 김병민, 『朝鮮中世紀 北學派 文學研究』, 목원대 출판부, 1992.
 김윤조, 「유득공 시의 문예미」, 『한국한시연구』 12집, 한국한시학회, 2004.
 김준연, 『당대 칠언율시 연구』, 역락, 2004.
 노우정, 「杜甫 七律의 成就 研究」, 『중국어문학지』 18집, 중국어문학회, 2005.
 문복희, 「유득공의 실학정신과 시」, 『경원어문논집』 4,5합집, 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1.
 박종훈, 「초정 박제가 초기 시 고찰」, 『한국언어문화』 35집, 한국언어문화학

회, 2008.
 裨다니엘, 「韋應物の 現實詩 研究」, 『중국어학연구』 10집, 한국중어중문학회, 1995.
 송준호, 「柳得恭論」, 『朝鮮後期 漢文學 作家論』, 집문당, 1994.
 안대회, 『18세기 한국 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尹錫愚, 「陶淵明의 思想과 飲酒詩歌 考察」, 『중국어문학논집』 26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4.
 이경수, 『漢詩 四家の 清代 詩 受容 研究』, 태학사, 1995.
 李胤淑, 「漢詩 四家の 初期詩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장준영, 「두보 영물시의 정신세계」, 『중국어학연구』 31집, 중국학연구회, 2005.
 정 민,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 효형출판, 2003.
 정량완, 『朝鮮朝後期 漢詩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1983.
 陳伯海 지음/李鍾振 옮김, 『당시학의 이해』, 사람과 책, 2001.
 崔南圭의 「杜甫 五言律詩의 類型 研究」, 『중국어문학』 38집, 2001.
 崔宇錫, 「沈·宋 律詩와 杜甫 初期 律詩의 비교 고찰」, 『중국어문학지』 25집, 중국어문학회, 2007.
 최웅혁, 「『清詩話』와 『清詩話續編』의 陶淵明 詩에 관한 評語 研究」, 『중국어학연구』 24집, 중국학연구회, 2003.
 _____, 「韋應物の 吏隱과 그의 田園詩」, 『중국어학연구』 38집, 중국학연구회, 2006.

<투고일 : 2009. 12. 31. 심사일 : 2009. 1. 16. 심사완료일 : 2009. 2. 11.>

<Abstract>

A Study on Early Poems of Youngjae You

Deuk-gong

- Focused on *Hangaekgunyounjib*

Park, Jong-hun

Youngjae You Deuk-gong was a poet leading new poetic style in 18C. His early poems in *Hangaekgunyounjib* were famous not only in Chosun also in Ching. Searching his early poems means approaching poetic world of an individual and understanding an aspect of new poetic style in 18C.

Youngjae's early poems mainly contained sorrow and lamentation. However these poems weren't buried in sorrow and lamentation, they showed pointing of ingenuous life similar to poetic style of Dojam or Weungmul. Also Youngjae's unique poetic style indicated not mountains, waters and farms in ideas but realistic style that he described figures of farm in concrete life.

We can confirm Youngjae's concern about history because he wrote a lot of poems for retrospection and history in remains. Although these poems assumed a sorrow mood, they contained considerable information of geography and history of Chosun. In poems for retrospection and history, he was interested in lives of the present and he wrote poems animated realism and the feeling

of movement. It is result of awareness that this time become a page of history.

Formally his poems outstand for pursuing Tang's style. He used Dubo's writing style that a style of Chinese verse came to head in form with pursuing musicality using a particle in classical Chinese and repetition of word, amplification of reverberation through poetic diction disposition, using the canon of composition and antitheses, serving the "Four Tones" of classical Chinese and so on. Of course he had an unique style indicating affectionate remembrances about things and his mind indirectly.

Works with characteristic poetic style from novel ideas excelled in putting up ancient history. However he didn't arrange only ancient history. Through this he said his thought in a roundabout way or mixed up reconditely. Besides in process of poetical imagination, connecting novel ideas witty and naturally can be praised. He created a lot of works which surpassed for novel ideas and wit. He quoted just a little part of ancient history and authentic precedents and twisted them for opposite meaning.

Key words : You Deuk-gong, *Hangaekgunyounjib*, Dojam, Weungmul, Tang's style, Dubo.